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구인 숫자 3개월째 하락... 9백59만개
- Reuters: 3월 미국산 제조품 신규 주문 반등했지만...금리 상승 부담
- WSJ Real Time Economics: 인플레 지속 이유 판매가 올린 탓 - 엘런 장관
“빠르면 6월 1일부터 부채 지급 못해 - 팬데믹으로 떠난 간호사들 복귀 등

[미국 금융과 은행 사태]

- Bloomberg: 은행 불안감이 주식 강타... 거래
- WSJ: JP 모건, First Republic Bank 인수 거래에서 다시 이겨
- Bloomberg: 모건 스탠리, 거래 슬럼프로 3천여명 해고 계획
- WSJ: 투자자들 '액티브 ETF'에 몰린다

[아시아 경제]

- Bloomberg: 글로벌 성장 정지돼 북아시아 공장 쇠퇴
- Bloomberg: IMF, “중국은 완화적 금융/재정 정책 소지 있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삼성 Chatbot 금지와 Chegg주가 급락, IBM 고용 중단으로 “AI 중단 심화”
- WSJ: 법적 조사 받는 기업용 ChatGPT
- WSJ: 이종 과세, 대만의 미국 공장 투자 방해한다
- Bloomberg: 일본 항공, 13년 만에 첫 화물기 도입
- WSJ: Uber의 Rides, 배달 서비스 1분기 수익 연 29% 증가

[보고서]

- Harvard Business Review: 조직의 '정보 과부하' 줄이기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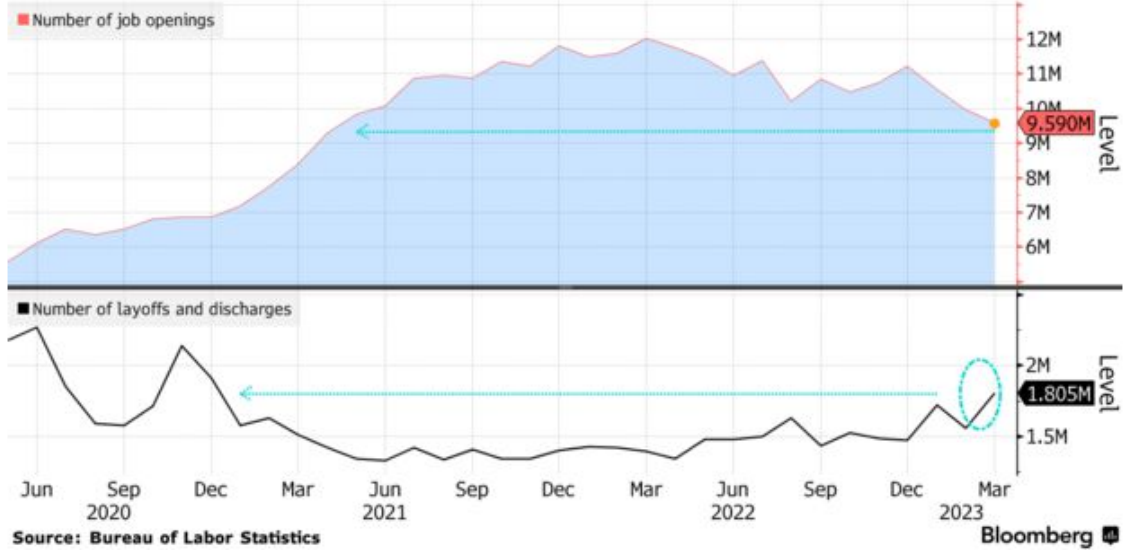
Bloomberg: US Job Openings Fall, Layoffs Jump in Sign of Softer Labor Market

미 구인 숫자 3개월째 하락... 9백59만개

- 오늘 화요일 연방 노동부 발표와 노동 이자율 조사 발표에 따르면 1) 한달 전 거의 1천만개의 일자리가 9백59만개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거의 2년 만에 최저치.
- 노동 수요가 점차 완화됐고 결국 고용 시장의 균형으로 임금 상승 압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부 회사들이 특히 기숙 분야와 금융 회사들이 감원하고 있지만, 크게 보면 노동시장은 여전히 탄력적이며, 미국과 경기 침체 사이에서 든든히 버티고 있는 셈이다.
- 2) 해고는 건설, 숙박 및 음식 서비스,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2020년 12월 이후 최고치로 늘었다.
- 전체 고용 대비 자발적 이직자 비율(voluntary job leavers as a share of total employment)을 측정하는 이른바 이직률은 2.5%로 낮아져 2년 만에

최저치를 보인 것.

US Job Openings Slide for a Third Month, Layoffs Climb Least vacancies in almost two years suggest job market is softening



Bloomberg 기사

Reuters: US factory orders rebound on aircraft in March 3월 미국산 제조품 신규 주문 반등했지만...금리 상승 부담

- 민간 항공기 (생산) 예약 증가에 힘입어 미국산 제품의 신규 주문이 반등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제조업은 금리 상승의 부담으로 계속 힘든 상황이다.
- 오늘 화요일 연방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미 공장 주문이 2월에 1.1% 줄었다가 3월엔 0.9%로 상승했다.
- 이 분야는 미 경제의 11.3% 점유율을 보였는데 지난 1980년대 연준의 가장 빠른 금리 인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여기다 현재 은행 사태로 은행들의 대출 고삐 조이기 상황에 있다.
- 한편 미국인 소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용에 의해 구매되는 상품 구입에서 서비스 지출도 이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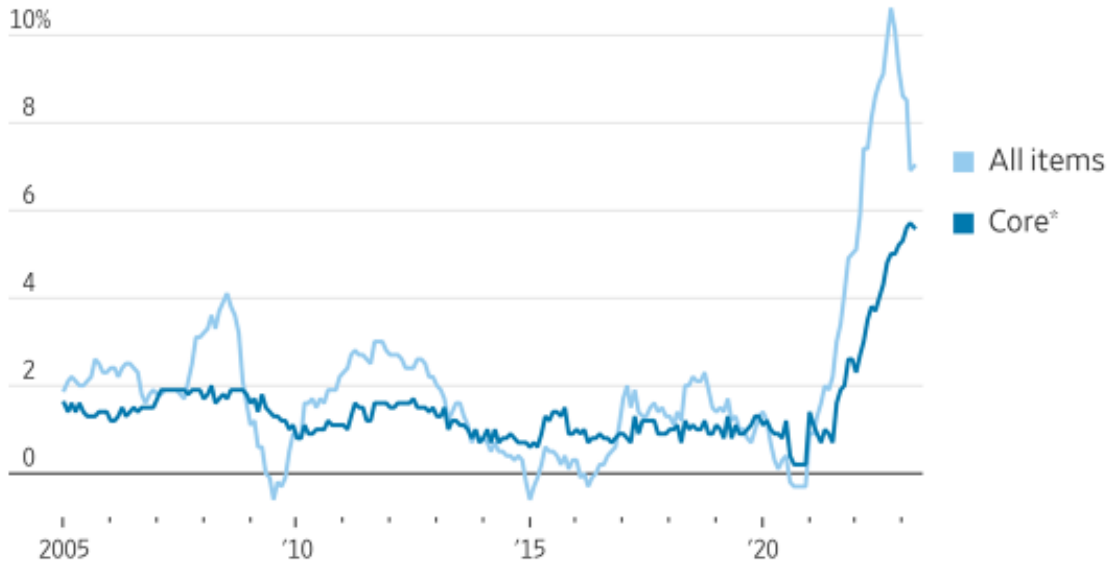
Reuters 기사

WSJ Real Time Economics 기사들: 인플레 지속 이유는 판매가 올린 탓, 옐런 장관 “빠르면 6월 1일부터 부채 지급 못해, 팬데믹으로 떠난 간호사들 복귀 등

[인플레 지속 이유는 판매가 올린 탓]

- 고질적 인플레는 중앙은행들의 예상보다 더 끈질기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기업들이 이를 수익률 제고에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것. 즉, 작년 하반기에 인플레 요인은 임금 상승보다는 기업의 이윤 확대 때문이라는 것.
- 일부 기업들은 자신들의 투입 비용 인플레 보다 재빠르게 판매 가격을 올렸기 때문 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Eurozone consumer-price index, 12-month 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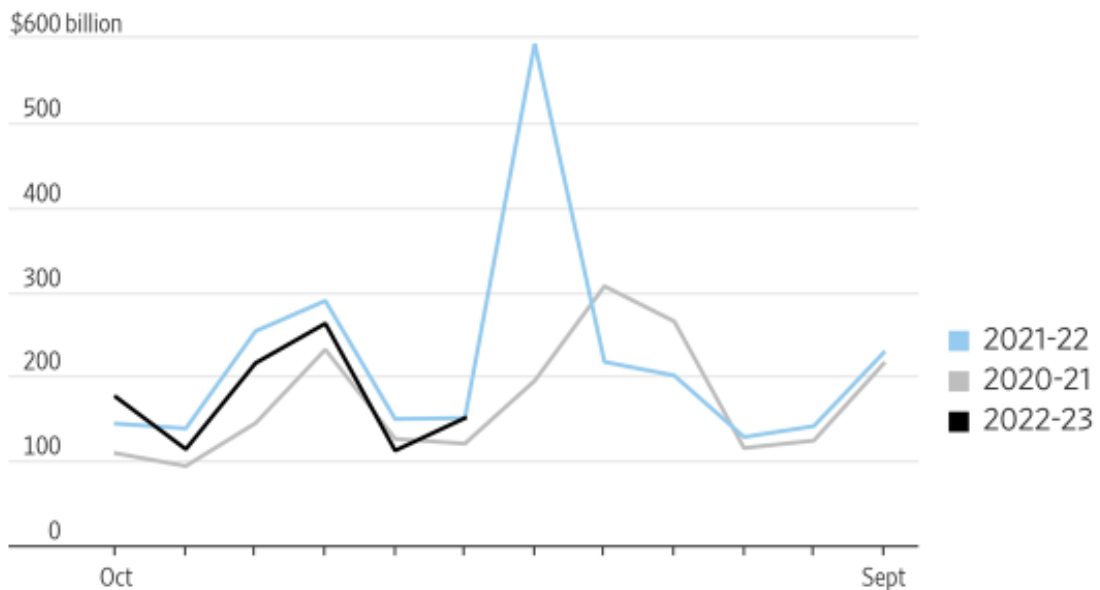


*Excludes energy, food, alcohol and tobacco
Source: Eurostat

[엘런 장관, “빠르면 6월 1일부터 부채 지급 못해]

- 엘런 연방재무장관은 의회가 부채 상한선을 올리지 않으면 빠르면 6월 1일부터 연방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각종 지출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당초 보다 미국의 부채 리스트가 앞당겨진다는 것이다.
- 바이든이 현 부채 한도 31조4천억 달러 상향 조정을 위해 양당 지도자를 초청했으나 양당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의회 예산실은 소득세 등이 줄어 재원이 더 빨리 바닥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U.S. individual income tax net receipts, month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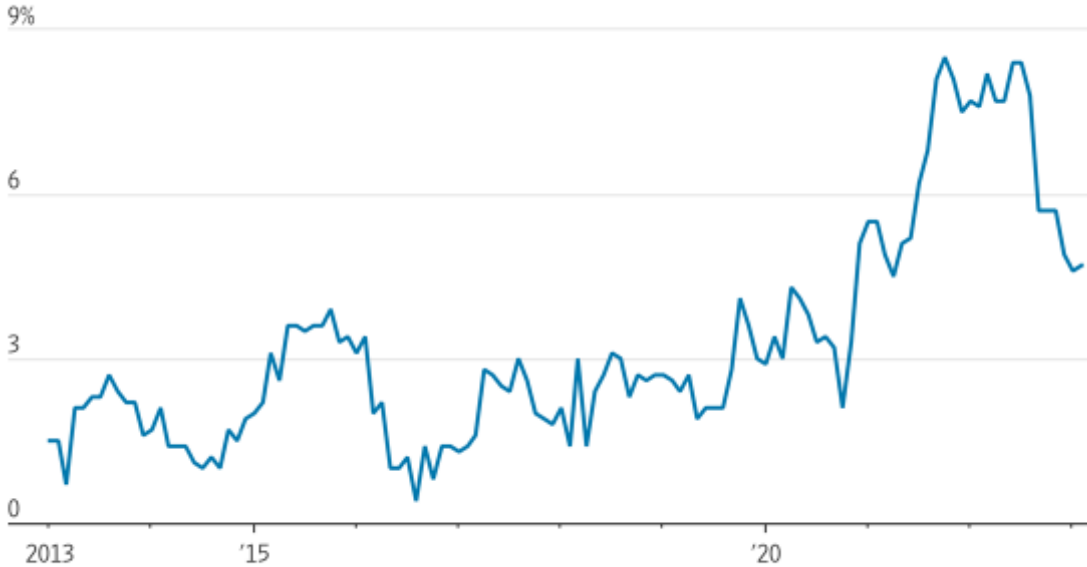


Note: Fiscal year runs from October through September
Source: U.S. Treasury

[팬데믹으로 떠난 간호사들 복귀]

- 미 간호사들이 돌아오고 있다. 팬데믹 당시에 탈진하거나 임금이 더 좋은 임시직을 갖기 위해 병원을 떠났었다.
- 그런데 임시직 임금이 줄어들고 병원의 새로운 혜택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에 따라 팬데믹 당시에 간호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이 만원에다 환자 치료 거부등의 문제점들이 덩달아 회복되고 있다.

Average hourly earnings for employees of U.S. hospitals, 1-year change



Note: Seasonally adjusted
Source: Labor Department

[신규 주택 수요 증가... 기존 주택 매물 적어]

- 주택 개발업자들이 올 봄에 즐거운 비명을 내고 있다. 기존 주택 시장에서 공급이 적어 신규 단독 주택 판매가 다시 회복되기 때문이다.
- 매물이 적은 이유는 집 소유자 입장에서 모기지가 오르다 보니 집을 팔기에, 또 현재의 상대적으로 낮은 자신들의 모기지율이 포기하기에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신규 주택 개발자들이 희색이 만면한 이유다. 새 집 짓기에 활발하다.
- 지난 3월 전체 단독주택 시장의 3분의 1 가량이 신규 주택이었다. 예전에는 10~20% 남짓 했을 뿐이다.

[미국 금융]

Bloomberg: Bank Jitters Hit Stocks as Traders Pile Into Bonds

은행 불안감이 주식 강타... 거래자들 채권에 몰려

- 은행들이 다시 매도를 하면서 월가에서 리스크 방어 분위기가 우세했다.
- 오늘 화요일 KBW 은행 지수에 포함된 21개 기업이 모두 하락함에 따라 금융주가 전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쳤다. 27억 달러 규모의 SPDR S&P Regional Banking 상장지수펀드는 6.5% 이상 떨어져 2020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PacWest Bancorp와 Western Alliance Bancorp는 최소 22% 급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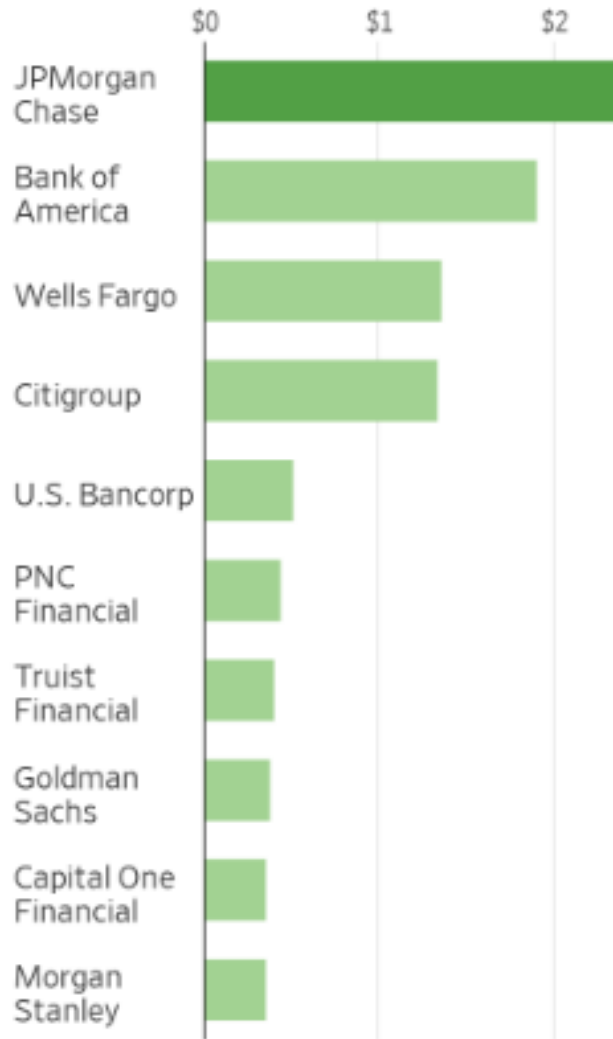
- 특히 금융 시스템 불안이 부채질 하면서 트레이더들은 가장 안전한 시장으로 몰렸다. 즉, 국채 2년물 금리는 17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하락하며 4%에 가까이 떨어졌다. 오늘 화요일 발표된 연방 노동부 고용지표가 3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이면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뉴스에 채권 가격도 상승했다.
- 스왑은 이번주 수요일 FOMC에서 연준의 0.25%포인트 인상을 거의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우려 때문에 2023년 말과 2024년에 얼마나 많은 양적완화가 필요할지에 관련된 베팅이 늘었다.

Bloomberg 기사

WSJ: Jamie Dimon Wins Again in First Republic Bank Deal JP 모건, First Republic Bank 인수 거래에서 다시 이겨

- 한마디로 JP 모건의 CEO인 Jamie Dimon은 방대한 대차 대조표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작은 다른 은행들을 제치고 문제가 있는 이 은행을 인수하게 됐다.
- JP모건은 First Republic Bank 예금 920억 달러 전액을 인수할 예정이다. 또한 약 1,730억 달러의 대출과 300억 달러의 유가증권을 포함하여 은행의 자산 대부분을 매입한다. 1분기 말 기준 JP모건의 자산은 3조 7,000억 달러, 예금은 2조 4,000억 달러에 달한다.
- JP 모건은 예전에 워싱턴뮤추얼 을 인수해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사업 확장을 혜택을 보았지만, 파산한 이 은행의 모기지 문제 관련한 규제와 법적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도 했다.
- First Republic Bank는 지난 3월 실리콘 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1,000억 달러의 예금을 인출당하면서 무너졌다.

Deposits, in trillions, as of March 31



Source: the companies

WSJ 기사

Bloomberg: Morgan Stanley Plans 3,000 More Job Cuts as Dealmaking Slumps

모건 스탠리, 거래 슬럼프로 3천여명 해고 계획

-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이 투자은행 고위 관리자들은 이번 분기 말까지 전 세계 인력에서 약 3,000개의 일자리를 줄이는 방안은 논의하고 있다는 것.
- 이 규모는 자산 관리 부문 내에서 재무 고문과 이들을 지원하는 인력을 제외한 직원의 약 5%에 해당하는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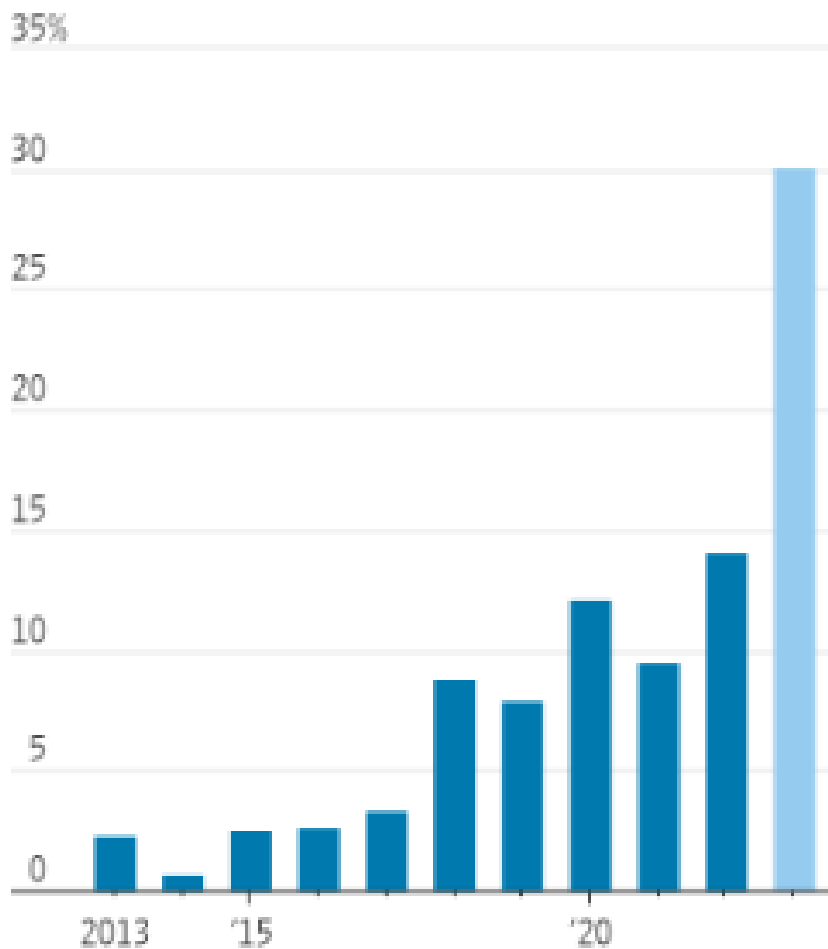
Bloomberg 기사

WSJ: Investors Are Piling Into Actively Managed ETFs

투자자들 '액티브 ETF'에 몰린다

- 투자자들은 소극적인 인덱스 투자의 대체와 관련 적극적으로 관리되는 상장비수 펀드에 자금을 많이 유입시키고 있다.
- Bloomberg Intelligence에 따르면 액티브 펀드는 전체 자산의 6%도 되지 않는 약 7조 불 규모의 ETF 시장에서 여전히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그러나 올해 들어 지금까지 전체 자금의 약 30%를 ETF로 끌어들었다. 이는 전체 자금의 약 14%를 모았던 2022년 액티브 ETF의 전성기에 뒤이은 것이다.
- 이같은 대규모 자금 유입은 1)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액티브 운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2) 거래자들이 손쉬운 방법으로 특정 전략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Active-fund share of total ETF flows



Source: Bloomberg Intelligence

WSJ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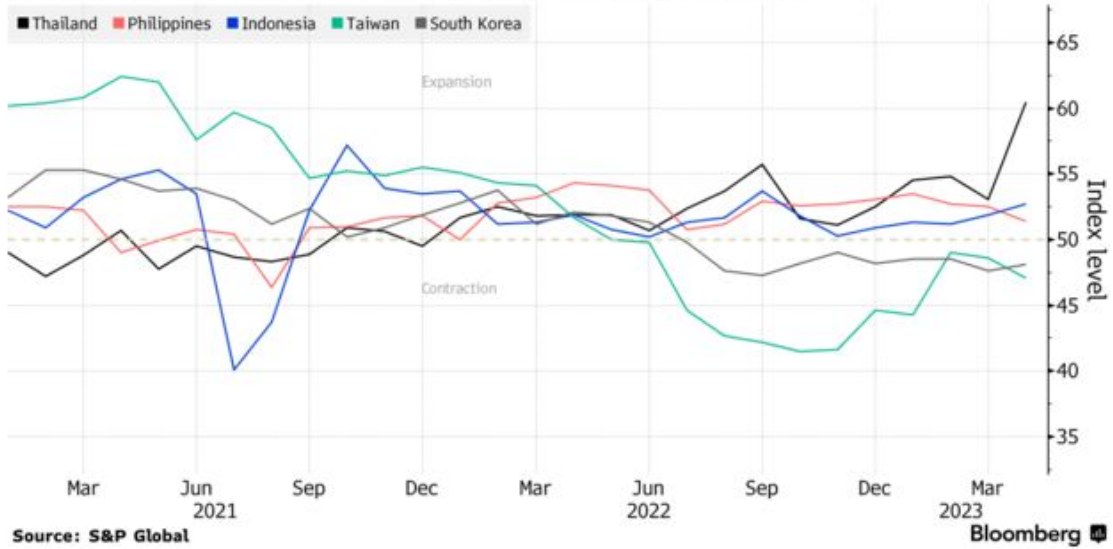
[아시아 경제]

Bloomberg: North Asia's Factories Stuck in Decline as Global Growth Stalls

글로벌 성장 정지돼 북아시아 공장 쇠퇴

- 북아시아의 수출 강국들은 4월에도 주춤했다. 세계 무역 부진과 중국의 더딘 경제 회복 때문이다.
- 화요일 S&P Global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각각 48.1과 47.1을 기록했다.
- 북아시아는 태국이 60.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각각 50 이상을 기록했다.
- 지역 PMI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제조업 활동이 예상치 않게 축소되었다. 북아시아와 남아시아의 실적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orth-South Divide Widens Among Asia's Manufacturers
Taiwan, South Korea PMIs contract while Southeast Asia rises



Bloomberg 기사

Bloomberg: IMF Says China Has Space to Keep Monetary, Fiscal Policy Loose

IMF, “중국은 완화적 금융/재정 정책 소지 있다”

- 이 국제 기관은 중국이 경제 회복을 확대하기 위해 보다 지원적 통화 및 재정 정책을 유지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 이유는, 1)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매우 낮고 2) 지원을 제공할 재정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한편 분석가들은 경제에 더 많은 부양책이 필요한지, 아니면 성장을 반등 때문에 정책 입안자들이 지원을 줄이기 시작할지 논의 중에 있다는 것이다. 지난주 중국 지도자들은 당분간 상대적으로 느슨한 정책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신호를 외부에 보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AI Disruption Deepens With Chegg Plunge, IBM Hiring Halt, Samsung Chatbot Ban**삼성 Chatbot 금지와 Chegg주가 급락, IBM 고용 중단으로 “AI 중단 심화”**

- 삼성은 이번 주에 생성 AI 도구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데이터가 외부 서버에 저장돼 삭제가 어렵고 다른 사용자에게 노출될 위험 때문이다.
- Chegg는 ChatGPT가 서비스 성장을 위협한다고 말한 뒤 주가가 40% 이상 급락했다(화요일 장 초반 기준). 이는 1년 만에 가장 많이 하락한 것이다.
- IBM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채용을 중단하거나 늦출 것이라고 했다. 이는 5년 동안 비고객 대면 역할(non-customer facing roles)에 종사하는 직원 중 약 30%에 해당한다.

**Chegg Shares Punished on Education Company's Dim Outlook
CEO warns that ChatGPT is affecting its business**

Bloomberg 기사

**WSJ: Corporate ChatGPT Applications Grow Despite Legal Scrutiny
법적 조사 받는 기업용 ChatGPT**

- OpenAI는 계속해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과 같이 중요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 때문이다.
- 이 회사는 지난주에 몇 가지 변경 사항을 도입했다. 사용자는 자신의 검색 내역으로 알고리즘을 학습시킬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저장되지 않은 검색은 30일 후에 삭제 된다.
- ChatGPT가 차별이나 허위 정보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AI 도구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 초안 작성을 검토하고 있다.

WSJ 기사

WSJ: 'Double Tax' Hinders Taiwan's Investment in American Factories 이중 과세, 대만의 미국 공장 투자 방해한다

- 미국에서 활동하는 대만 기업은 '이중 과세' 문제에 직면 했다. 이중 과세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고 미국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계획이다.
- 대만 반도체 제조 회사인 LCY의 CEO는 "대만의 투자에 큰 장애물이 된다"며 "캐나다와 독일은 이중 과세 방지 조약을 체결했으나, 미국은 아직 체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미국은 대만과 양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주권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직 대만과 공식적인 조세 조약이 없다.

WSJ 기사

Bloomberg: Japan Airlines to Debut Its First Freighter Planes in 13 Years 일본 항공, 13년 만에 첫 화물기 도입

- 일본 항공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화물기 3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활용한 수익 다변화를 위함이다.
- 또한 내년에 일본 트럭 운전사들의 근로시간을 시간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 때문에 화물 운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Bloomberg 기사

WSJ: Uber's Rides, Delivery Lift First-Quarter Results Uber의 Rides, 배달 서비스 1분기 수익 연 29% 증가

- Uber는 승차 공유 및 배달 서비스에 대한 수요 덕분에 매출과 1분기 수익이 증가했다.
- Uber는 올해 1분기 수익이 전년 대비 29% 증가한 8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화요일에 밝혔다. 또한 소비자 수와 여행, 거래 가치를 높였다.
- 1분기 동안 Uber의 승차 공유 및 배달 서비스 이용 건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는 가격 상승이 아닌 이용 건수가 Uber의 성장을 주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WSJ 기사

Harvard Business Review: Reducing Information Overload in Your Organization

조직의 '정보 과부하' 줄이기

- 요약: '정보 과부하'는 잘못된 의사 결정의 원인이 된다. 좋은 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달려있다. 인간 중심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선 에너지,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한다.
- 약 1천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38%의 직원이 조직에서 '과도한 부담', 27%의 직원은 '다소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는 직원들이 조직에서 1) 정보 수에 압도되고 2) 정보가 무의미하다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 리더의 40%, 매니저의 30%가 심한 부담을 갖고 있다. 부담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을 후회할 가능성이 7.4% 더 높고,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2.6배 더 높다. 그들은 비즈니스 변화를 회피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 이에 대한 첫 번째 해결책은 '부담이 적은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직원들이 무력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에서 정보가 어떻게 공유되어야 하는지 서로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조직에서 정보 공유에 대한 상호 이해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정보 흐름에 대한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해야 한다. 이는 팀의 심리를 안정적으로 개선하는 데 용이하다.
- 두 번째는 '처음부터 책임 강화시키기'다. 많은 정보가 가시성(a lack of visibility)이 부족해서 직원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 효과적인 정보 관리는 관련된 모든 사람이 번거로워도 지속적으로 책임을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정보 관리를 공유된 비전에 따라 조정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공유 비전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조직원이 정보 수집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갖게 한다. 경험한 것을 판단하고 결정 하려면 현재 경험한 것을 조직원 간에 공통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는 직원의 업무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번역: 임세민

Harvard Business Review 원문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JP모건 인수" 퍼스트리퍼블릭 주식 상장폐지...예금은 보호"

"우선주·회사채 투자자도 손실 불가피...대출 등 서비스 그대로"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이 JP모건 체이스에 인수되면서 투자자들은 투자금 회수가 어렵게 됐다. 반면, 예금자들의 예금은 보호됐다.

1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주식은 거래되지 않았다. 이날 새벽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부(DFPI)가 이 은행을 폐쇄했기 때문이다.

DRPI는 곧바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파산관재인으로 지정했고 JP모건 체이스는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을 인수하기로 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